

# “한국탁구 20년 토대 다진다”

“대한항공에서 2020년까지 지원 약속  
미래발전특위 구성 임기 내 성과낼 것”

“7월 코리아오픈, 세계 최고 대회 인정”  
내년 부산세계선수권 전초전 기대감

유승민 대한탁구협회 신임 회장(37)이  
취임식을 갖고 한국탁구발전 방안을 밝  
혔다.

대한탁구협회는 18일 서울 더 플라자호  
텔 그랜드볼룸에서 유 회장의 취임식 및  
코리아오픈 간담회를 열었다.

지난달 31일 보궐선거를 통해 탁구협회  
회장에 선출된 유 회장은 “회장 선거가 끝  
난 지 3주가 약간 안됐는데, 재밌게 활동하  
고 있다.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긍정적  
인 신호를 많이 받았다. 재정적인 부분에서  
우려의 시선도 있는데, 11년 째 인연을  
이어오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2020년까지  
지원을 약속 받았다. 협회가 재정적인 부  
분에 있어서도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  
도록 노력하고 있고, 그렇게 만들 자신도  
있다”고 힘주어 말했다.

유 회장이 취임 후 가장 공을 들이고 있  
는 부분 중 하나는 ‘탁구 미래발전 특별위



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(오른쪽)이 18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, 임기 내 협회 운영 방안 등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. 뉴시스

원회’ 신설이다. 그는 “대의원총회와 이사  
회를 통해 나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확인  
했다. 임기 1년 6개월이 긴 시간만 아니다.  
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

다. 그래서 탁구 미래발전 특별위원회 신  
설을 생각했다”고 설명했다. 이어 “생활체  
육과 엘리트체육 분야 등 각계각층의 다양  
한 의견을 듣고 비전에 대한 부분을 도출

할 것이다.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면 임기  
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. 향후  
20년을 잘 이끌어갈 토대를 만드는 것이  
내 목표”라고 밝혔다. 생활체육·엘리트체  
육 지도자와 선수, 스폰서 등을 위원으로  
하는 미래발전 특별위원회를 6월말까지  
확정하고, 7월말 첫 회의를 갖는 다는 게  
유 회장의 구상이다.

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는 국제탁구연  
맹(ITTF)이 주최하는 코리아오픈 국제탁  
구대회가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펼쳐진다.  
유 회장 취임 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국제  
대회다. 남자 세계랭킹 1위 판관둥(중국),  
2위 린가오위안(중국), 4위 하리모토 토모  
카즈(일본) 등 세계최고 실력자들이 대거  
참가한다. 이번 대회는 내년 부산세계선수  
권대회의 전초전이어서 국내 탁구계의 기  
대가 높다.

유 회장은 “코리아오픈이 대세가 됐다.  
각국에서 최고의 대회로 인정받고 있기 때  
문에 많은 선수들이 나온다는데 자부심 느  
끼고 있다. 부산에서 하기에 더 의미가 있  
다. ITTF 현지 실사단도 올 예정이다. 테  
스트 이벤트로서 좋은 기회 인 것 같다”고  
기대감을 나타냈다.

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

## “현장 외면한 혁신위 권고안” 체육계 공동성명 집단 반발

스포츠인들  
18일 서울 방이동  
올림픽파크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
스포츠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스포츠  
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에 대해 공동성  
명서를 발표했다.

이번 공동성명서는 혁신위가 학교스포  
츠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발표한 2차 권고  
안에 대해 당위성,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  
내 체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전  
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스포츠인들의  
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. 스포  
츠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 
의 주권회복과 발전을 위해 혁신위의 2차  
권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  
하며 혁신위의 ‘열린 운영’, 실질적 스포츠  
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제시, 2차 권  
고안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.

이를 위해 체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 
있도록 스포츠 현장의 협회 단체 지도자,  
체육학계 및 언론인, 학부모, 학생 선수 등  
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혁신위의 ‘열  
린 운영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 권고안  
중 스포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 
‘주중대회 금지’, ‘특기자제도 수정’, ‘운동  
부 합숙소 폐지’, ‘소년체전 폐지’ 등의 권  
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재논의를 실시하  
여 스포츠 현장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 
수정,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.

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스포츠인들은 스포  
츠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혁신  
위 2차 권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결의  
대회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.  
양형모 기자 ranbi@donga.com

## 황동일·최석기 결국 코트 떠나나...베테랑의 비애

김종건의 아들로그 스포츠

만일 연봉 2억원 가까이 받던 30대 가장  
이 다음달부터 월급이 한 푼도 나오지 않  
는 처지가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. 누구  
보다 절박하게 새로운 일터를 찾거나 아니  
면 제2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고  
민할 것이다.

6월 V리그는 이별의 계절이다. 선수들  
의 계약이 6월30일로 끝나고 7월1일부터  
시작되는 새 계약서를 한국배구연맹(KOV  
O)에 제출해야 하기에 모든 구단은 선수들  
과 재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. 삼성화재  
의 황동일과 한국전력의 최석기는 최근 소  
속구단으로부터 이별통고를 받았다.

황동일은 이번에 자유계약선수(FA) 자  
격을 얻었다. 구단은 이적이 쉽도록 FA재  
계약을 먼저 한 뒤 다른 팀을 찾아보도록

배려를 해줬다. 만일 다른 팀에서 데려가  
지 않으면 FA재계약을 하고 KB손해보험  
에서 은퇴했던 이선규와 비슷한 수순을 밟  
아야한다. 황동일은 팀의 훈련에 참가하지  
않은 채 자신을 거둬줄 새로운 팀을 열심히  
알아봤다.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기회를  
잡지 못했다.

한때는 한국배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  
형 세터로 기대를 모았던 33세의 선수에게  
는 냉정한 현실이다. 경기대 시절 뛰어난  
피지컬과 발전 가능성 덕분에 큰 관심을  
모았다. 2008~2009시즌 창단 팀 우리캐  
피탈 드림시스에 1라운드 4순위로 신인지  
명을 받았고 열혈도 되지 않아 LG손해보  
험과의 3대1 트레이드에 포함됐다. 프로데  
뷔 첫해 LG손해보험의 주전세터로 신인  
왕을 차지하는 등 빛났던 시절은 오래가지  
못했다.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버렸다. LG  
손해보험~대한항공~삼성화재 등 어느



황동일 최석기

팀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. 한 때는 팀  
의 필요로 미들블로커도 해봤지만 세터처  
럼 성공하지 못했다. 혹자는 많은 감독들  
이 이런저런 주문을 하다보니 원래의 좋은  
기량을 잃어버린 케이스라고도 한다. 원인  
이야 어쨌든 좋은 선수가 꽃도 피워보지  
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안타깝다.

최석기도 마찬가지다. 최근 소속팀으로  
부터 방출통고를 받았다. 미들블로커가 귀  
한 대접을 받는 현실에서 아직 선수로서  
기량을 충분히 했지만 한국전력은 과감한 결

단을 내렸다. 젊은 팀을 만들겠다는 구단  
의 의지와 새로운 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 
는 코칭스태프의 판단에 따라 베테랑을 정  
리했다. 이제목도 이 과정에서 함께 유니  
폼을 벗었고 최근 실업배구 팀으로 갔다.  
예상 못한 이별통고에 “당황스럽다”고 솔  
직하게 속내를 밝힌 최석기도 새 팀을 찾  
아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. 33세의  
나이와 적지 않은 연봉이 걸림돌이다.

우리카드는 우상조, 이수범, 이동석, 김  
석민 등 4명을 웨이버로 공시해 새로운 길  
을 찾으려 했다. 이들 외에도 많은 선수가  
이미 팀을 떠났고 또 떠날 것이다. 프로배  
구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흘린 많은 땀과  
오랜 시간의 결과가 이처럼 허무한 결말  
이라는 것을 팬들은 가끔 잊어버린다. 코  
트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  
뒤에는 이처럼 힘든 삶의 현장도 존재한  
다. 이번엔 소속 팀을 떠나는 선수들에게  
또 다른 배구선수 혹은 배구선수가 아닌  
제2의 인생에는 꽃길만 가득하기를 기원  
한다.  
전문기자 marco@donga.com

##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

**경기 결과**

**프로야구 기록실 (17일)**

**팀순위**

순위	팀	경기수	승	패	무	승률	게임차	연속 타율	경기당 홈런	경기당 실점	홈런 도루	실책				
1	S K	71	47	23	1	0.671	-	3승	0.263	3.45	0.611	328	270	61	55	44
2	두산	72	45	27	0	0.625	3.0	1승	0.276	3.30	0.658	364	267	45	49	42
3	L G	70	40	29	1	0.580	6.5	1승	0.258	3.11	0.656	287	269	40	45	48
4	키움	73	41	32	0	0.562	7.5	3승	0.280	4.20	0.611	399	325	53	54	48
5	N C	70	36	34	0	0.514	11.0	3승	0.282	4.14	0.568	335	324	69	34	56
6	K T	72	31	41	0	0.431	17.0	2승	0.271	4.94	0.588	313	383	48	51	61
7	삼성	70	30	40	0	0.429	17.0	2승	0.266	4.26	0.529	318	333	60	55	55
8	한화	70	29	41	0	0.414	18.0	5승	0.249	4.66	0.545	308	343	48	61	49
9	K I A	70	28	41	1	0.406	18.5	2승	0.267	4.95	0.472	309	369	39	44	42
10	롯데	70	25	44	1	0.362	21.5	2승	0.260	5.40	0.472	328	406	43	37	57

**Before & After 7-Game**

팀	9일	11화	12수	13목	14금	15토	16일	18화	19수	20목	21금	22토	23일	25화
S K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두산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한화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키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K I A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삼성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롯데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L G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K T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N C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
**퓨처스리그 (18일)**

**팀순위**

순위	팀명	경기수	승	패	무	승률	게임차	승률	경기수	승	패	무	승률	게임차
1	한화	41	25	13	3	0.658	-	1	상무	49	32	15	2	0.681
2	두산	50	25	19	6	0.568	3.0	2	KT	54	29	24	1	0.547
3	LG	49	20	23	6	0.465	7.5	3	KIA	52	26	24	2	0.520
4	SK	54	24	29	1	0.453	8.5	4	롯데	53	21	27	5	0.438
5	고양	46	18	25	3	0.419	9.5	5	삼성	57	23	31	3	0.426
								6	NC	53	18	31	4	0.367

**경기결과**

팀	1	2	3	4	5	6	7	8	9	R
소프트	0	5	1	2	5	0	2	0	2	17
고양	0	0	1	0	0	0	0	1	0	2

**메이저리그 (11일)**

**아메리칸리그**

순위	동부지구	승	패	무	순위	중부지구	승	패	무	순위	서부지구	승	패	무
1	뉴욕Y	44	27	1	미네소타	47	24	1	휴스턴	48	25			
2	탬파베이	43	29	2	클리블랜드	37	34	2	텍사스	39	33			
3	보스턴	40	34	3	시카고W	34	36	3	오클랜드	37	36			
4	토론토	26	46	4	디트로이트	25	43	4	LAA	36	37			
5	볼티모어	21	51	5	캔자스시티	24	48	5	시애틀	31	45			

**내셔널리그**

순위	동부지구	승	패	무	순위	중부지구	승	패	무	순위	서부지구	승	패	무
1	애들렌타	43	30	1	밀워키	40	32	1	LAD	48	25			
2	필라델피아	39	32	2	시카고C	39	32	2	애리조나	38	35			
3	뉴욕M	34	38	3	ST.루이스	37	34	2	콜로라도	37	34			
4	워싱턴	33	38	4	LAD	32	38	4	샌디에이고	36	37			
5	마이애미	25	45	5	피츠버그	32	39	5	샌프란시스코	31	39			

**경기결과**

팀	스코어	팀	스코어
LAA	10-5	토론토	오클랜드 3-2
텍사스	7-2	클리블랜드	ST.루이스 5-0
캔자스시티	6-4	시애틀	샌디에이고 2-0
샌프란시스코	3-2	LAD	뉴욕Y 3-0
보스턴	2-0	미네소타	애들렌타 12-3
신시내티	3-2	휴스턴	뉴욕M

**아마추어 경기결과 (18일)**

**아마추어 경기예고 (19일)**

**아규** ●제 73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(목동, 신월, 오전9시30분)  
●1회전=원주고 6-2 경복고, 안성고 6-3 도계고, 부산고 3-1 경남고, 울금고 5-1 부천고

**축구** ●제 27회 여왕이 전국여자축구대회(창녕스포츠파크) ●고등부 1조=오산정봉고 3-1 운남고, 현대고 3-0 로복고 ●고등부 2조=동산정신고 1-1 화천정신고 ●고등부 3조=예성고 4-0 동부고 ●고등부 4조=광명여고 5-0 한별고

**농구** ●2019 KUSF 대학농구 U-리그(광주) ●여자부=수원대(5승3패) 65-57 광주대(3승4패) ●여자부 현재 순위=① 부산대(7승), ② 수원대(5승3패), ③ 단국대(3승3패)

**아이스하키** ●2019 고교 아이스하키리그 2차리그(목동실내빙상장) ●보성고 3-2 중동고, 광고고 4-0 경성고

**테니스** ●제 72회 전국 종합 럭비 선수권대회(진도 전두운동장) ●중등부 준결승전=청주남중 48-7 연수중, 대서중 28-19 사대부중

**양궁** ●제 30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(충북 보은) ●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전=정재환(사상구청) 7-3 박민범(인천계양) ●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전=이특영(광주시청) 7-1 최민선(광주시청) ●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전=청주시청 6-0 공주시청 ●리커브 여자 단체전 결승전=전북도청 5-3 홍성군청

**프로야구 (19일)**

**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**

NC (-)	(잠실)	두산 (-)	LG (-)	(대구)	삼성 (-)
오후6시30분, MBC스포츠플러스, KNN-R			오후6시30분, SPOTV, 대구방송-R, 대구MBC-R		

**경기 예고**

**프로야구 (19일)**

SK (-)	(광주)	KIA (-)	KT (-)	(고척)	키움 (-)
오후6시30분, SBS스포츠, 광주 CMB			오후6시30분, SPOTV2		

**롯데 (-)** **(대전)** **한화 (-)**

오후6시30분, KBSN스포츠, 대전 CMB, 대전방송-R, KNN-R, 대전MBC-R		

**아마추어 경기예고 (19일)**

**아규** ●제 73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(목동, 신월, 오전9시30분)  
**축구** ●제 27회 여왕이 전국여자축구대회(창녕스포츠파크, 오전10시)  
**배구** ●2019 FIVB 여자 발리볼 네이션스리그(한국보령종합)  
**테니스** ●제 74회 전국 학생 테니스 선수권대회(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)  
**배드민턴** ●제 62회 전국 여름철 종합 배드민턴 선수권대회(전남 장흥, 영암, 오전9시)  
**골프** ●2019 KPGA 챌린지투어 10회 대회(군산 CC, 오전6시)  
**하키** ●2019 남자 FIH 시리즈 파이널 대회(프랑스)  
**럭비** ●제 72회 전국 종합 럭비 선수권대회(진도 전두운동장, 오전11시)  
**정구** ●2019 전국 정구 종합 선수권대회(충북 음성)  
**태권도** ●제 49회 협회장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(강원 태백고원체육관, 오전9시30분)  
**복싱** ●2019년 전국 종합 복싱 선수권대회(청양군민체육관, 오후12시)  
**씨름** ●제 33회 전국 시도 대항 장사씨름대회(제주 성산국민체육센터, 오전10시)  
**검도** ●2019년 봉림기 전국 실업검도대회(경남 거창스포츠파크, 오전9시20분)  
**사격** ●2019 한화희망배 전국 사격대회(창원, 오전9시)

**오늘의 토토 (19일)**

**야구토도 스페셜 48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**

경기	경기일시	홈팀 vs 원정팀	경기장소
1	06.19(수) 18:30	삼성 vs LG	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
2	06.19(수) 18:30	KIA vs SK	기아챔피언스필드
3	06.19(수) 18:30	한화 vs 롯데	한화생명미글스파크